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되세요

설명절 가정예배

2026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초청 ----- 인 도 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 송 -----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다 갈 이

기 도 -----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우리 가족의 모든 계획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들려주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 주시고, 서로를 더 깊이 아끼며 배려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사무엘상 7:12 ----- 다 갈 이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말 씀 -----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 ----- 말 은 이

찬 송 -----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다 갈 이

주기도문 -----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위기를 넘긴 후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세 가지 은혜**를 나누며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 과거를 해석하는 신앙

첫째로,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에게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밤잠을 설칠 만큼 힘겨운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사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곳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크게 패배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삶의 아픈 흔적들조차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 공동체를 묶어주는 사랑

둘째로, 에벤에셀은 "우리"를 향한 도우심입니다. 사무엘은 혼자 잘나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각자도생하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끈으로 묶인 영적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셨다" - 미래를 여는 확신

셋째로, 에벤에셀은 "도우셨다"는 완료형 고백인 동시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미래형 신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실 리 없습니다. 2026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블레셋 군대와 같은 현실의 벽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보다 앞서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경영자가 되셔서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2026년 새해에 세우는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 집 대문을 나서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